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민원처리특위, 미아역주변 안심귀갓길 타당성 조사활동

사업구간 주변 골목도
범죄 예방 위해
순찰 강화 당부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40분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청의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이 잘 되었는지 조사를 위해 구청의 여성복지팀장,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팀장 및 담당 그리고 관할 지구대 경찰과 함께 노선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혹시 문제점은 없

는지, 구간설정에 대하여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이루어졌다.

이 날 현장에서 특위 위원들은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계획'은 사업구간 노면 상에 여성안심 귀갓길 표시를 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면에 여성안심귀갓길, 112위치 신고번호 등 문구를 노면에 페인트로 칠을 하고, 보안등 설치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업취지와 구청 담당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박문수 민원처리 특별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은 후



▲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강선경, 박문수 의원.

“늦은 시간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활용하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 기대가 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

다”고 약속하였으며, 덧붙여 경찰청에서도 안심귀갓길 노선 구간뿐만 아니라 사업구간 주변 골목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포스트 4면

민원처리 관련 특위 여성안심귀갓길 타당성 조사 나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의원은 경찰 관계자와 함께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40분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 등은 구청의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와 관할 지구대 경찰과 함께 노선 현장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구간설정에 대하여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이루어졌다.

이 날 현장에서 경찰청 담당자들은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계획'은 사업구간 노면 상에 여성안심 귀갓길 표시를 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면

에 여성안심귀갓길, 112위치 신고번호 등 문구를 노면에 페인트로 칠을 하고, 보안등 설치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업취지를 청취하고 구청 담당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문수 민원처리 특별위원장은 “늦은 시간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활용하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 기대가 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덧붙여 관계 경찰에게 안심귀갓길 노선 구간뿐만 아니라 사업구간 주변 골목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미아역주변 여성안심귀갓길 조사활동 펼쳐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40분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청의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이 잘 됐는지 조사를 위해 구청의 여성복지팀장,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팀장 및 담당 그리고 관할 지구대 경찰과 함께 노선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구간설정에 대하여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이루어졌다.

이 날 현장에서 특위 위원들은 경찰청 담당

자로부터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계획'은 사업구간 노면 상에 여성안심 귀갓길 표시를 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면에 여성안심귀갓길, 112위치 신고번호 등 문구를 노면에 페인트로 칠을 하고, 보안등 설치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업취지와 구청 담당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박문수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은 후 "늦은 시간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활용하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 기대가 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오전 미아역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설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며, 덧붙여 경찰청에서도 안심귀갓길 노선 구간뿐만 아니라 사업구간 주변 골목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